



2025 KOSTAUSA

SHALOM

WITHIN & BEYOND

전체집회 강사 소개



전체집회 강사 소개



김정아 교수

George Fox University

George Fox University에서 사회사업학 교수로 재직하며, 20년 넘게 용서 (forgiveness)와 변증 (apologetics) 세미나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변증을 통해서도 청소년과 청년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들을 경험하고, 변증을 논쟁이 아닌 대화의 도구로 삼아 복음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데 열정을 가지고 섬깁니다. 10년 전, 학교 두 캠퍼스에서 Science and Religion Club을 시작하여, 특히 신앙의 여정에서 상처 받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분노”를 나누고 토론하며, 감성과 지성이 함께 회복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용서와 변증은 전혀 다른 주제처럼 보이지만, 이 둘이 하나로 어우러져 복음이 더욱 선명하게 빛날 때, 퍼즐 조각이 온전히 맞춰질 때 느껴지는 깊은 감동에, 힘든 순간에도 잘 버티며 그 기쁨으로 감사하며 걸어 가고 있습니다.

김재우 선교사

Proskuneo Ministries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 16살에 미국으로 이민, 내면의 상처와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예배와 선교사역에 헌신했으나 그것을 직업적 소명으로 연결시키기까지 방황하고 해메는 시간을 거쳤다. 아내 김조이 선교사, 자녀 예선, 지환과 조지아주 클락스톤이란 도시에서 전세계에서 모여든 난민과 이민자들로 이뤄진 다민족 공동체 프로스쿠네오의 리더십으로 섬기고 있으며, 예배 인도자, 송라이터, 다민족 선교사로 클락스톤과 세계 곳곳에 다민족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살고 있다.



류인현 목사

뉴프론티어교회

18년 간의 청년사역을 통해 청년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목사다. 서울대학교 (B.A.),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M.Div., Th.M.)에서 공부했다. 2007년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시작했다. 2010년 맨해튼에 뉴프론티어교회를 설립했으며 2023년에는 젊은 가정들을 중심으로 뉴저지 캠퍼스를 개척했다. 미주코스타 공동대표로 섬기고 있으며 몇몇 선교단체들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선교, 그리고 교회개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청년들을 위해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와 [춤추는 고래는 행복하다]라는 책을 썼다. 사랑하는 아내와 세 딸들과 함께 뉴저지에서 살고 있다.

박영호 목사

포항제일교회

‘에클레시아’(교회)를 주제로 한 연구로 세계 신학계에 이름을 알린 성서학자이자 목회자다.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와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Th.M.)을 졸업하고, 미국 예일 대학교에서 석사학위(S.T.M.), 시카고 대학교에서 신약학 및 초기 기독교문학으로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박사 과정 중 시카고 약속의교회를 개척해 10년간 목회했고, 귀국 후 한일장신대학교에서 신약학 교수로 4년간 가르쳤다. 현재 포항제일교회 담임목사로 섬기며, 미래목회와 말씀연구원 원장, 제4차 로잔대회 한국준비위원회 말씀운동 지도목사로 활동 중이다. 국내외 다양한 집회와 코스타 강사로도 활발히 사역하고 있으며, 특별히 목회자와 신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의 눈으로 시대를 해석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다시 만나는 교회』, 『시대를 읽다, 성경을 살다』,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 『쾌청 신약』, 『빌립보서』, 『성경을 보는 눈』(공저) 등이 있으며, 박사학위 논문은 Paul's Ekklesia as a Civic Assembly와 『에클레시아』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전체집회 강사 소개



배덕만 교수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 백향나무교회

배덕만 목사는 서울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예일신학대학원에서 공부했고, 드루대학교에서 미국교회사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대전에서 건신대학원대학교 교회사 교수로 가르치면서 주사랑교회를 담임했으며, 지금은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와 백향나무교회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 그동안 세계교회사, 한국교회사, 복음주의운동사, 오순절운동사 등을 공부하고 가르쳤다. [교회사의 숲], [복음주의 리포트], [우리는 교회인가?], [세계화시대의 그리스도교] 등의 책을 썼고, [기독교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리스도교의 역사와 침묵], [급진적 기독교] 등을 번역했다.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들로 구성된 참다운 교회들이 하나님나라 실현에 기여하길 소망하며, 학교와 교회를 오가며 진땀을 흘리고 있다.

배헌석 목사

앤아버 소망교회

캠퍼스 사역과 이민 목회를 시작한 지 3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목회는 새롭고, 배움의 현장임을 날마다 느낀다. 그래서 늘 배우지 않으면 안되고, 늘 무릎으로 살아가야 함을 매일 깨닫는다.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믿기에,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으로는 삶의 현장을 가리키며 '신앙과 생활'이 하나로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을 늘 고민하는 현장의 목회자이다. '제자됨'이 '제자 삼는 삶'임을 믿으며 주님께서 주신 제자화의 사역을 통해 교회가 교회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공동체임을 성도님들과 함께 늘 되새기며 함께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다.



원동철 전도사

뉴프론티어교회

순간의 예술을 영원에 맞닿은 가치로 바꿀 수 있을까? 그 고민이 담긴 음악/ 재즈/ 노래/사진을 좋아합니다. 20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참여한 예배에서, 찬양 한 곡을 통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음악으로 예수를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일, 예배를 세우는 사역을 계속하게 되나봅니다. 더 나아가 다양한 예술 포맷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이야기 하는 것을 꿈꾸며, 배우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사랑하는 아내 김현정과 딸 예울이와 함께 창작에 힘쓰고, 공동체와 예배자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